

교회 목표

1. 천국일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자 구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다”
(시 18:1)

주간 충현

발행인: 신 성 중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 현 교 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 화: 552-8200 · FAX 552-2925

사서함: 영동우체국 1896호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롬 12:17)

심령부흥회 내일저녁부터

“근본문제를 해결하자” 주제

10월31일 저녁까지 강사 이만신 목사

우리 교회는 내일(28일)부터 31일까지 심령부흥회를 개최한다.

이 부흥회는 중앙성결교회 당회장인 이만신 목사를 강사로 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하자”는 주제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산 1:2)는 주제 성구와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라”(19:4장)라는 주제 찬송 아래 4일 동안 저녁 7시와 새벽 5시에 진행된다.

집회시 지켜야 할 사항

1. 충현의 모든 성도가 가슴을 열고 충만한 은혜 받기를 뜨겁게 사모한다.
2. 모든 집회 시간에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부르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3. 집회의 모든 시간에 참여하고,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한다.
4. 성회 기간 중 각자 특별히 작정 기도를 한다.
5. 구역의 연약한 형제와 믿지 않는 이웃을 권하여 함께 참여한다.



강사 이만신 목사

- 원거리 성도의 새벽 집회 참여 편의를 위하여 교회 내에 숙소와 아침 식사를 제공한다.

기도제목

1. 성도 개개인의 잠든 심령이 말씀으로 일깨워지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
2. 영육간에 상처받고 병든 이들은 온전히 고침받는 풍성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
3. 온 교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여 복음을 활발하게 증거하게 하소서 /
4. 말씀 가운데 서로 섬기는 교회 생활을 통해 온 성도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
5. 나라의 안보를 허락하시고, 통일을 속히 이루어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을 어서 세우게 하소서 /

오늘 제11교구 단합대회 개최

제11교구(교구장 김은호 장로, 지도 장경철 목사, 부지도 김정순 전도사)는 오늘 오후 2시 30분 메주라기홀에서 가을철

단합대회를 개최한다. 교구 식구들은 기도회, 간증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성경암송대회 은혜중에 마쳐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성경암송대회(교 각 부서별로 실시되었다. 시상 송대회가 지난 10월 20일 교회학 자는 다음과 같다.

등수 부서	1 등	2 등	3 등	장려상
영 아 부	장 서 영	우 지 혜	채 유 식	장 세 정
유 아 부	김 수 현	장 소 희	이 수 찬	이 윤 기
유 치 부	안재우·이세진			
초등 1부	김 신 정	유 연 주	이 효 조	김 경 도
초등 2부	이 기 혁	허 다 열	석 진 아	이 다 혜
초등 3부	황 순 용	이 영 환	윤 여 영	김 신 영
초등 4부	한 보 람	유 윤 주	윤 여 만	이 윤 진
초등 5부	이 화 영	이 은 혜	이 상 급	황 경 아
초등 6부	윤 삼 열	조 혜 영	박 지 혜	양 인 석
중등 1부	고 유 미	홍 경 오	박 주 영	한 유 리
중등 3부	우 종 철	민 회 정	손에스터	김 도 희
고 등 부	최 은 아			
대 학 부	송 미 주	김 유 정	이 길 찬	김 지 용
청년 1부	김 화 숙	박 현 정	이 혜 경	추 진 희
청년 2부	구혜옥·정윤지	김 동 철		
장년 1부	이 복 순	김 종 섭	김 진 단	박 은 숙
장년 2부	김 영 주			
장년 3부	정 정 자	김 은 영		
장년 4부	김 재 평	김 순 실	윤 정 덕	이 복 음
소 망 부	김 양 득	박 대 원	구 절 례	조 범 식
예배다부	양 혜 응	이 정 아	강 종 현	이 태 훈
사 랑 부	별도시상			
영어(유치부)	허 다 열	신 지 은	김 구 슬	김에스터
영어(초등2부)	데이비드김	김 혜 려	허에스터	유 요 한
영어(초등5부)	김 태 현	이 수 란		
영어(중등부)	김 이 삭			

김창인 원로목사 한국기독교선교대상 수상

지난 10월 21일(월) 앰배서더 호텔에서 있었던 제2회 한국기독교 선교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교회 김창인 원로목사가 목회자 부문 선교대상을 수상하였다.

한국기독교선교대상은 사단법인 세계복음화중앙협의회가 주최하고 '94 민족통일복음화대성회 본부가 협찬하여 한국 교회 부흥과 세계 선교에 헌신 봉사하는 목회자나 평신도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제1회 충현찬양합창제

11월2일(토) 오후6시 본당서 개최

우리교회는 교회설립 38주년을 기념키 위하여 제1회 충현 찬양합창제를 오는 11월2일(토) 오후 6시 본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찬양합창제는 본교회로서

는 처음 개최하는 것으로서 기대가 크며, 출연 찬양대는 가브리엘 찬양대를 비롯하여 「실로암」, 「임마누엘」, 「시온」, 「호산나」, 「베들레헴」, 「할렐루야」 찬양대와 크로마하프 연주단, 그리고

핸드벨과이어가 출연한다.

이번 행사의 주최는 찬양위원회이며, 연합찬양대 지휘는 이관섭 찬양감독, 배주는 백금옥씨가 맡는다.

충현유치원 부모 참여 수업 실시

충현유치원은 1년에 한 차례씩 모든 학부모들을 초대하여 자녀들의 유치원 생활을 공개하는 “부모 참여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10월 23일과 24일에 가졌다.

부모 참여 수업은 단순한 참관이 아니라 유치원 프로그램에 부모도 직접 참여하여 하루 수업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부모들은 자녀들이 또래와의 생활 속에서 자기 자녀

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으며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부모·자녀와의 사랑을 더 친밀히 나누는 기회가 된다. 그뿐 아니라 자녀의 교육환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사의 지도를 관찰함으로써 자녀 지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유치원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참여 수업이 끝나고 실시한 평가에서 어머니들의 반응은 매우 만족스럽게 나타났다.

직원 모집

충현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직종 : 관리직 남자 2명, 경리직 남자 1명, 여자 2명, 기술직 남자 2명(전기기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1명, 설비 및 자동차 제어 취급자 1명), 경비직 2명

학력 : 고졸 이상

제출서류 :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

제출기한 : 11월 9일

제출처 : 사무국 총무과(교육관 102호)

▶ 시편강해

억울함을 당하는 신자의 기도

(시 54:1~7)

김창인 원로목사

세상에는 억울함을 당하는 의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들이 원망을 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다윗이 죄없는 죄인으로 몰려서 도망을 다니다가 부하들과 함께 이웃나라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선지자 갓이 와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장군이 우상을 섬기는 모압으로 피난 온 것을 지적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듣고 다윗이 부하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자 모두들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생명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하나님만 믿고 돌아가자고 부하들을 권면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와 헤벳 수풀이라는 곳에 숨어 지냈습니다.

그때 그일라라는 작은 성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생명과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멸망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다윗은 그일라성으로 가서 구원해주자고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부하들은 또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생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선한 일을 하자. 내 민족이 죽는 것을 보고도 나에게 위험이 올까봐 내 민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애국자가 아니다. 내 민족을 살려 놓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부하들을 타일렸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생명을 걸고 싸워서 블레셋 침략군을 완전히 도륙하고 그일라성 사람들은 한 사람도 손해를 당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구원을 얻고 생명과 재산이 보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일라성 사람 중에 다윗을 생명의 은인으로 여기고 보호하였다가는 사울왕에게 소멸당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사울왕에게 다윗이 그곳에 있음을 고발했습니다.

이에 사울왕은 다윗을 다 잡았다고 생각하고 군대를 거느리고 그일라성을 향해 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분한 마음을 금치 못했으나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일라성 사람이 사울왕에게 나를 잡아가라고 고발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다.” “사울왕이 저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온다” “사울왕이 오면 그일라성 사람들이 내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사울왕의 편에 서겠습니까?” “사울왕의 편에 선다.” 기가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성 사람들을 책망하는 말 한 마디 않고 부하들을 위로하면서 심황무지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도 사울왕에게 가서 고소를 했습니다. 또 다시 마온으로 도망갔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은 인간적으로 너무 위태로웠습니다. 다윗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침략해 들어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울왕은 이 보고를 듣고 블레셋과 싸우러 갔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위기를 모면했고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4편입니다.

1. 하나님께 구원을 애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부르짖지 맙시다. 입으로는 동정하나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해 관계를 따져보고 자기에게 이익이 나는 데로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선악을 분별하여 선을 따라가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자주 불러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워야 하며, 기도를 바로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며 먼저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높고 높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찾으면 감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 말할 용기가 납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시 54:1)

다윗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충성하고 선한 일을 해도 사람은 절제조각처럼 흠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건지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입니다. 박의언 전도사님이 처음 목회를 하는데 3개월이 지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오히려 핍박만 받았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날 사모님이 염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경찰서에 신고하고 환자를 피병소로 옮기야 합니다. 전도는 한 사람도 못하고 사모님이 전염병에 걸려서 격리 수용되어 하나님께 욕이 될 것을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신고하기를 하루 이틀 미루고 있었는데, 이웃에서 이것을 알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들이 오더니 생명을 건진다는 사람이 전염병자를 숨겨두었다며 마구 욕을 해댔습니다. 박 전도사님은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낮지 않으면 새끼줄을 치던지, 산 채로 묻던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길로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차도가 없습니다. 삼일째 마지막 밤에는 원망섞인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 박 전도사님을 어린 딸이 깨우면서 엄마 병이 다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늘문이 열리더니 이사야가 본 옷자락이 엄마가 누워계신 방에 환하게 드리워 있고 “네 병이 나을지 어다”하는 부드러운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전도사님은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와보니 사모님이 앉아서 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었더니 자기를 산 채로 묻어도 좋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과 이 지방의 복음화와 남편의 복음 사역을 위하여 병이 나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박 전도사님은 망령되이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이 깨끗이 낫게 된 것을 알게 된 그들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고 돌아갔고, 이런 이야기가 동네에 퍼져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박 전도사님을 찾아왔고 예배당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하소서”

(시 54:1)

하나님의 힘은 선악을 갈라 놓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갈라놓는지 아는 사람은 오늘의 억울함을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권능이 자기를 붙들어 성공자가 되게 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10년간의 노예 생활과 3년간의 감옥 생활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악한 자의 꾀를 어떻게 꿰뚫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지옥불을 준비하시는 공의로운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힘으로, 지옥불을 준비하시는 공의로운 힘으로 꿰뚫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시 54:2)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을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은 증언부인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목적이 무엇인지 분간하신다는 것입니다. 세력있는 자들을 찾아보면 말을 듣는 것 같아도 딴 생각을 하고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실 분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외인이 일어나 나를 치며 강포한 자가 내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시 54:3)

외인이란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돈이나 인정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 고집장이 같아서 이들을 괴롭힙니다. 외인은 성도들의 생명을 죽이려고 괴롭힙니다. 이런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하여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2. 확실히 믿는 신앙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시라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드는 자와 함께 하시니이다”

(시 54:5)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울 때에 다윗은 자신을 돕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는 내가 절망하고 못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후원의 기도 요청입니다. 그보다 귀한 기도는 “나를 붙들어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또한 그보다 더 귀한 기도는 “바치는 기도로 내 생명 써주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자기 혼자 먹고도 남지 않을 도사라인데 이것을 주님께 기쁘게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받으신 다음에 오십명씩 오천명을 앉히시고 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주며 나누어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과 내가 배운 지식을 나를 위해 쓰지 맙시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무식해도, 몸에 병이 들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어 주님께서 써주시면 어려운 일이 해결되는 체험을 통하여 기쁨이 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저희를 멸하소서”(시 54:5).

이러한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심판을 맡겨야 합니다.

3. 서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대저 주께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나로 목도케 하셨나이다”(시 54:6, 7).

낙헌제는 기쁨으로 바치는 제사입니다. 십일조를 기쁨으로 바치는 것, 부모님을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잘되면 교만하여져서 약속을 안 지키고 일이 안되면 억울해서 약속을 안 지키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생명을 바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평생을 낙헌제를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어지러운 세상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괴롭히는 의인이 되지 맙시다. 억울함을 당할 때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와 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붙들어주심을 받고 하나님의 써주시는 복을 받아 후세까지 복을 물려줍시다. 복을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잊지 말고 낙헌제를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비텐베르크의 대학 교회 대문에 95개조에 달하는 토론 제목이 나붙었다. 이 글은 중세 로마교회의 부정과 부패에 대한 항의서인데 이 논제가 제시됨으로 역사의 한 위대한 새 장(章)이 펼쳐지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교회의 부패를 막기 위해 토론 제목으로 내세웠던 '95개조' 사건은 의외로 확대되어 마침내 혁신적인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개혁의 초기에는 루터나 츠빙글리나 다같이 로마교회 안에서의 개혁과 정화를 시도했지만 물결치는 시대적 요청은 결국 로마교회와의 완전한 결별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의 로마카톨릭교회에서는 일부 경건한 교직자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많은 교직자들은 탐욕으로 세속화되고 있었고, 그들의 생활은 부정과 부패로 줄달음질쳐 사람들의 지탄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비텐베르크에서 비롯된 개혁의 물결은 사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으며, 이와 동시대에 스위스에서는 츠빙글리가 개혁운동에 합류하게 되었다. 개혁의 거센 운동은 계속 진행되다가 마침내 존 칼빈에 이르러 더욱 찬란한 빛을 보게 되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의 독일은 매우 종교적인 분위기로 휩싸여 있었다. 감동적인 종교 의식이 곳곳에 성행했고 수많은 교회와 기도처소와 수도원은 도시를 수놓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종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종교였고 교리적으로 잘못된 종교였다.

루터는 1520년에 쓴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쓴 서한'에서 그 당시 중세 교회의 윤리 도덕적

항상 개혁하는 교회

—종교개혁주일을 맞으면서—



김창수 목사
(제5교구·청년3부 지도)

타락상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자칭하면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뽑내는 기독교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자가 어떤 왕이나 황제도 따라갈 수 없는 극치의 세속적 영화 속에서 사는 것을 볼 때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황제가 일출 왕관을 쓰는데 교황은 삼출 왕관을 쓰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추기경들도 돈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로마로 흘러가는 돈은 마치 밀빠진 독에 물붓는 격이다. 교황청의 부패상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하니 곧 성직 매매, 술주정, 사기, 도적질, 강도질, 사치, 간음, 협박 등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로 가득차 있다. 적그리스도가 다스렸다고 해도 이보다 더 부패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면죄부'란 것을 팔면서 이 돈은 로마에서 건축 중인 베드로대성당의 건축비로 쓴다고 공언하였지만 실제로는 면죄부의 매상과 절반을 판매자가 갖는 등 거짓이 극에 달했던 것이다. 비텐베르크성 밖에서 태철이라는 도미니칸 수사(修士)는 행인들에게 면죄부를 팔 때 연보케 속에 떨어지는 동전이 연옥에 있는 조상을 구원한다고 웅변하였다.

중세 교회는 이와같이 사람을 공포로 사로잡고 아울러 선행과 성례와 면죄부를 통한 사죄의 길을 제시해주었다. 루터가 사실 8년 동안 수도 생활을 하게 된 동기도 지옥의 공포를 면하기 위함이었다. 16세기는 매우 종교적인 시기였지만 그 종교는 루터에게 지옥의 두려움만 가져다줄 뿐 그것은 생명력을 잃은 의식적인 종교였다.

하고 저기에 인간의 생각과 말을 더하거나 혹은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감하는 위선이야말로 가장 사투한 기반이다. 로마교회는 라틴어 성경을 낭독하면서 듣는 교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둘째는 '오직 은혜'만이었다. 인간의 공로가 자랑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찬송되는

완전하지 못하다. 그것은 오류를 범할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도 있다. 이리므로 마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용광로에서 용해하는 과정을 지나듯 지상 교회는 안고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새로워지려는 노력이 항상 필요하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건전하고 왕성한 성장과 부흥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수많은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생명없는 종교의 고착화, 제도화, 과시화(誇示化)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부패의 온상이다. 종교적 타락은 거의 언제나 그릇된 신학 체계와 아울러 종교지도자들의 부정하고 부패하며 외식(外飾)적인 생활이라는 두 가지 요소에서 연유한다.

그런즉 우리는 시대마다 크고 작은 개혁운동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된다. 개혁이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파괴와 분리를 개혁이라고 오해해서도 아니된다. 오히려 파괴적인 상황 가운데서 건설과 화평을 이룩하는 적극적인 신앙인이 곧 오늘의 개혁자들이다.

이를 위해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 모든 인간의 권위는 다 무너지더라도 말씀의 최종적인 권위 앞에 만인이 복종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탐구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 대한 무관심은 적극적인 참여 자세로, 불신과 증오는 협력과 사랑으로, 분쟁과 분열은 화목과 연합으로 바뀌는 신앙적 정신 혁명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개혁운동이 아닐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 아멘.

새로워지려는 노력필요

결국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진리의 빛을 보게 되었고, 성경을 구원과 은혜와 신앙 생활의 유일한 기초로 삼게 되었다. 성경을 통한 은혜의 깨달음은 그의 스승이었던 슈타우퍼츠나 중세의 신비가였던 버나드나 스콜라주의자들의 저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확신을 그에게 주었다. 이 확신은 마침내 그의 손에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 수 있게 해주었다.

종교개혁에 있어서 다섯 가지의 원칙이 언급되어 왔다. 그 첫째는 '오직 성경만'이라는 것이었다. 성경을 길로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성경의 교훈을 왜곡

것이다. 셋째는 '오직 믿음'만이었다. 즉 '선행과 믿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다. 중세의 종교는 신(神)의 이름을 빙자한 인간들의 천국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본주의적 문예부흥으로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였다. 다섯째는 유명한 '반인 제사장주의'였다.

종교개혁 474주년을 맞아 우리는 종교개혁이 과거의 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도 현존하는 현재적 사건임을 기억하게 된다. 오늘 우리의 교회는 부단히 개혁되어야 한다. 지상 교회는

대 마음에서 조금 빛나있더라도, 자존심이 생기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순서가 좀 바뀌어지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일기에 겸손히 순종할 때다. 내게 맞춘 수치 계산으로 알량한 자존심을 때어낼 때가 아니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자란 행동을 보시고 외면 하시기 전에 자진하여 자리를 찾아 일할 때다. 내가 속한 부서가 오늘날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더 절망적일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마저 최선을 다하여 일할 때다.

우리의 죄와 땅을 흘러 지은 총회교회의 거기에 이 동전에 자작손이 뼈를 묻을 각오와 결심만 있다면, 오늘의 시련들이야 문제가 될 수 없다. 성전을 짓다가 지치고 지친 몸과 마음에 연약의 무지개로 희망과 소망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잠잠 하던 총회의 바다에 풍랑을 주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높고 낮음을 재어보기 위함이고, 믿음의 풍랑을 달아보기 위함이다. 알곡과 쟁이를 골라내시기 위함이다.

이제 남은 작은 마음을 바로 잡고 눈물로 기도해야 하고 울음으로 헌신해야 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보전하기 위하여 일하고 또 일할 때다. 모든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큰 일을 찾을 때요, 사랑으로 감사안을 때요,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다. 세상은 요란하고 험한 소리를 내어도 우리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장년2부 달란트발표회

장년2부(부장 김은호 장로, 지도 박형용 목사)는 오늘 달란트발표회를 갖는다.

성경이야기, 찬송부르기, 간증, 문예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성도간에 교제를 나누게 된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생중회라고 하는 교단들이 총회 때가 되면, 오랜 잠대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며 중상하고 모략하고 글썽이 오고가며, 서로 총회장 되겠다고 아귀다툼이다. 또, 목회자를 양성, 교육하기 위한 신학교는 어떠한가. 서로 존경하고 존경받아야 할 교수들이 복사요, 신학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습과 인격 존중의 모습이 커녕, 선후배도, 질서 의식도 없이 저속어

장로 칼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때



서동석 장로(기획위원)

를 쓰고 얼굴을 붉히거나 교수 회의를 한다. 그러한 비선양 인격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니 온통 신학교도 일반 학교처럼 정치판화 되어가고 있다. 교회는 어떠한 세상이 아쉬운다. 또 교회도 어수선하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서커스단의 어린이 학대, 나이트 클럽의 방화, 여의도광장 결구 등 죄를 지어놓고서도 태연히 말하는 얼굴 모습이 무섭다.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다.

어디 세상만 그리한가. 천국을 건설하고 구원의 방주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렸고 또 잃어가고 있으며 성도로서 도저히

가, 이쪽에서 도저히 목회자로 세울 수 없어 일단의 기회를 가지라고 하였는데 저쪽에서 금방 목회자로 안수하여 세우는가 하면, 교회에 물의를 일으켜 쫓겨난 목회자가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보란듯이 교회를 세워 확보하는 세상이 되었다. 치러가 없어진 무질서를 본다. 전성 말세가 왔다. 이제 정세를 차려야 할 때다. 해야 할 일은 많은데 할 말 없는 사람처럼 앉아 있기만 한다. 대내도 운영 계획서도 만들어야 하고, 조직도 재정비해야 하고, 요람도 만들어야 하고, 행사도 재정비해야 하며, 규정도 수정 보완해야 한다. 또 얼굴으로 임명받아야 하고, 예산 편성도 해야 하고, 인제 인수 준비도 해야 하며, 성탄 준비도 해야 한다.

주수거리는 많은데 일꾼이 없다. 일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관자가 많은 것이 문제요 두 마음을 거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설도들은 없고 세는 것이 분별해야 하고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여야 하며, 악과 선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 결과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 '동가숙 서가식(東家宿 西家食)'하는 유의 산자는 뜨겁게도 없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토해냄을 당할 것이다. 더구나 하나님의 교회를 열고, 들어내고, 휘방하고, 망가뜨리는 것은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써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이 교회를 짓기 위하여 얼마나 피땀흘리는 노력과 헌신을 하였던가. 파출부로 막을 것 막지 못하고 입을 것 입지 못하면서 이 성전 짓기 위하여 바친 눈물과 헌금도 있고, 지장 한 귀퉁이에서 그 추운 겨울 철없는 어린이를 옆에 앉혀 놓고 손을 붙여가며 빈대기 장사를 하면서 낸 가박한 자원의 헌금도 있고, 재산의 십일조는 물론이요 차례회의 집의 이름 대가면서 허라피를 줄라매며 지은 교회가 아닌가.

이제는 시련은 끝이 났고, 폭풍우도 지나갔다. 상흔이 쉽게 아물지는 않았지만 재자리를 찾아 문연의 자세를 갖추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렘 29:13). '믿음'은 두었다가 어디에다 쓰려는가. 이런 때에 쓰지 아니하려는가. 우리 총회 가족 모두가 '믿음'의 지력을 발휘할 때다.

우리 교회 설립 38주년을 맞아 제1회 충현찬양합창제를 열게 하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이 날은 충현의 온 성도와 찬양을 좋아하는 이웃들이 함께 모여 찬양을 통한 축제의 한마당이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고대하게 된다.

11월 2일(토) 오후 6시에 본 교회 본당에서 열리게 되는 이 찬양의 큰 잔치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리라고 믿는다.

이번 찬양합창제에는 본 교회 8개 찬양대(주일예배4부, 수요일예배 2부, 영어예배, 일본어예배)와 핸드벨 콰이어, 크로마하프연주단, 오케스트라 1개, 찬양단체가 모두 참가하여 정성껏 준비한 열감 있는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충현찬양합창제에 귀를 기울이자

이관섭 집사(찬양 감독)

각 찬양대마다 8분 내외로 2곡 내지 3곡을 부르게 된다. 이번 찬양합창제는 음악회에서의 연주 형식을 취하는 것이므로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순수한 음악회의 청중의 입장에서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한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아낌없는 박수로 격려와 찬사를 보내주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에 찬양대원들은 감격하게 되고 힘들여 준비한 보람을 느끼면서 감사하며 만족하게 될 것이다. 충현교회의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과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록한 예배에서 찬양을 담당하는 찬양대도 이번 행사를 통하여 타에 본이 되고 모범적인 찬양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 축제의 찬양합창제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기대해본다.

첫째,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둘째, 찬양을 통한 선교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고, 셋째, 성도들은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넷째, 찬양대원들



에게는 질적인 향상과 단합된 모습으로 스스로 은혜받는 기회가 될 것이다. 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원한다.

교회 설립 38주년 기념 행사인 제2회 성극경연대회(대회장 신성종 목사, 준비위원장 박승준 장로)가 오는 11월2일, 3일 오후 3시 갈릴리홀에서 열린다.

지난 1회에는 8개팀이 참가한 데 비해서 이번 대회에는 10개팀이 참가 신청하여 그 열기가 자못 대단하다.

시상은 아동 부문(영아부, 유치부, 초등3부, 초등5부, 초등6부), 학생 부문(중등1부, 중등2부 A,B팀), 성인 부문(대학부, 청년1부)으로 구분하였고 시상은 단체상으로 최우수작품상, 우수작품상, 장려상이고, 개인상, 남녀 주연상, 남녀 조연상, 연출상으로 나누어 수상한다(단, 아동 부문은 개인상이 없다).

수확의 계절, 영그는 가을에 하나님께 드러지는 사랑과 감사의 무대 잔치인 '충현연극페스티벌'은 2000년대의 주역인 충현의 아동, 학생, 청년들에 의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준비위원회는 참가신청한 각부서는 물론 전교인이 참관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영화와 연극, 비디오, TV프로그램이 알파한 상흔에 젖어 쾌락과 오락 일변도로 전락한 이즈음, 비록 개교회이긴 하지만 '성극발표'야말로 선교의 도구요 은혜에 동참하면서 기독교 문화 정립에 작으나마 이바지하는 의의가 크다.

심사위원은 교회 내의 사제의 권위진으로 구성하였고 9개 부서 10개팀은 1~2개월에 걸쳐 열기념진 연습, 타극단 관람 등으로 1회에 비해 수준높은 작품이 양산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작품 내용 1면 참조).

대회 조직은 다음과 같다.

- △ 대회장 신성종 목사
- △ 부대회장 조전근 장로, 김채생 장로, 김영재 장로
- △ 준비위원장 박승준 장로
- △ 서기 노문환 장로
- △ 부서기 임양주 선생
- △ 회계 정광호 장로
- △ 총무부장 윤성철 장로
- 차장 김광호 집사
- △ 심사부장 김철재 장로

차장 김동욱 집사,

이근용, 이무열 선생

△ 진행부장 하대선 장로

차장 황의만 집사, 김단용 집사

참가 작품 소개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그의 개 로리는 하루종일 아무것도 얻어 먹지 못해 몸이 배가 고프다. 그때 한 소녀가 가족이 먹을 빵을 들고

그곳에서 사랑 나라의 지휘자를 만나게 된다. 그 지휘자는 뮤직머신이라는 기계를 통해 여러 노래를 소개하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게 된다.

•아프리카의 하나님

오지 아프리카에서는 마을 축제 때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으로 어린이를 재물로 바치는데 재물로 바쳐지는 축제 준비기간 중 풍토병이 퍼져서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한 주장의 아들까지 죽게 된다.

이때에 미국인 선교사가 그곳에서 하나

제 2 회

성극경연대회 11월 2일,3일 개막

집으로 가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빵을 그들에게 준다. 그들은 너무 기뻐서 열른 집으로 가서 그 빵을 먹으려 하는데 병자가 그들을 부르며 빵을 달라고 한다. 나사로는 조금 망설이다가 이내 그 빵을 병자에게 주고 결국은 먹지 못해 쓰러져 하나님 나라에 간다.

•실로암

어린이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곳에 한 소경이 나온다. 어린이들이 소경이라고 한바탕 놀러낸다.

잠시 후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 소경의 눈을 볼 수 있도록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니 소경은 세상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 감사드린다.

아이들의 실로암 노래 속에 막이 내린다.

•뮤직대선

사랑 나라는 어떤 곳일까? 미국과 비슷할까? 아니면 프랑스, 일본, 스위스? 그곳은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의 나라 속에 있는 예수님의 품과 같은 포근한 나라일 것이다.

이 사랑 나라에 오게 된 두 어린이는 남 말씀을 전하고 치료해줌으로써 그곳의

풍토병을 고쳐주고 복음이 들어가는 과정을 그런 이야기이다.

•악마의 축제

바알세불을 중심으로 귀신들이 교회의 직분자들인 장로, 권사, 집사 등 세 명의 권속들에게 시련과 시험을 주나 그들이 실족하게 않고 오히려 믿음이 강건하여지는 믿음의 승리자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조그만 어려움에도 좌절하고 낙심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반성하고 회개토록 하며 늘 깨어서 우리 주님께 기도해프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강조했다.

•죽으면 죽으리라

월계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한 후 고난을 당하게 된 안이숙 선생님의 일대기. 옥중 생활에 있어서의 수난 과정 중 죄수들은 물론 일본인까지 감화시키는 신앙과 복음 전파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참된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우리도 그분의 신앙을 본받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과 지옥 중 어느 곳으로 가게 될지를 심판하는 심판대 앞이다. 생명을 통해 두

일에만 앞장서야 하겠다.

•전국 열쇠

무대 배경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천사가 심판을 하는데 그 중에는 재벌, 스님, 철학자, 건달이 섞여 있다. 이들은 돈이나 지혜, 헛된 신앙, 완력 등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지만 모두 실패하고 만다. 결국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그대 아닙니다.

원제목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라, 그렇지만..."을 각색한 작품으로 "천사"와 "나"의 대화에서 내가 겪은 성경 구절을 빠르게 이해시키기 위한 것이다. 먼저, 나의 뺨을 때린 자에게 남은 한 쪽을 내놓으라는 말씀과 5리를 가자는 자에게 10리를 가주라는 말씀, 겹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는 말씀을 세 토막의 단막극 형식으로 꿈을 통해 각 상황들이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사람의 아들

이 극은 기독교의 신학적인 갈등만을 다룬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그 주제를 외면한 것도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신학적 갈등에서 벗어난 살인사건으로 보이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의미가 다양하게 부각될 수도 있다. 그 하나는 절대권위(神)에 대한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결과는 절대권위 속에 내재한 기본질서에로의 회귀로 끝을 맺지만, 그 편력에 대한 흥정을 보는 것으로 되어 있다.

•빛의 댕가

본래 장님이었던 요압이 성전앞에서 동양을 하던 중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였다 하는 이유로 산헤드린 공회에 나가서 증언을 강요당한다. 이런 위기 속에 저도 요압은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을 지경에 이르렀던 자에게 빛을 보게 해주신 주님을 부인하기를 거부하며 자기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모든 주위 사람에게 소개한다.